

도시주부의 환경지식과 자원절약태도가 자원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Urban Housewives' Environmental Knowledge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Attitude on Family Resource Management Behavior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중앙대학교 주거학과

교수 이경희

우석대학교 의상·주택학부

교수 곽인숙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Hong, Sung-Hee

Dept. of Housing Studies,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 Rhee, Kyung-Hee

Dept. of Clothing and Housing Design, Woosuk University

Professor : Kwak, In-Suk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elected variables on urban housewives' family resource management attitude and behavior, and (2) to identify the casual effects of variables on family resource management behavior. A sample of 641 was selected from housewives living in urban area. For data analysis, one-way ANOVA, DMR test, t-test,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housewives' family resource management behavior level was lower than their attitude level. 2.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attitude and behavior among the respondents were affected by the following independent variables : interest with environmental reports and newspapers, perception of time constraints, perception of economic reward. 3.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attitude had the greatest causal effect on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behavior.

주제어(Key Words): 자원절약태도(family resource management attitude), 자원절약행동(family resource management behavior), 환경지식(environmental knowledge), 경제적 보상 지각(perception of economic reward)

I. 문제의 제기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해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고 산업구조가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원의 남용을 낳게 되고 폐기물의 증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학문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경제학에서는 자원고갈과 환경문제가 일차적으로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보며, 경영학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환경친화적 제품과 구매의사결정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학 및 심리학에서도 환경태도와 실제 환경행동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시각과 연구관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소비자들의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고 환경보존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환경의식적인 행동으로는 표현되지 않거나 행동을 수행한다고 해도 수행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의식적 행동을 제약하는 원인과 이를 유도하는 동기요인은 무엇이며, 태도와 행동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과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이들의 관련성에 대한 견해는 약 3가지로 압축되는데, 태도가 행동을 이끌어내는 선행요인이라는 관점과 태도 및 행동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는 관점, 그리고 태도는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행동에는 소극적이므로 태도와 행동에는 격차가 있다는 관점이다.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DeYoung, 1989)에서는 자원고갈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생태주의 태도나 이타주의적 태도가 책임있는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으므로 환경태도는 환경행동에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유두련·심미영(1998)은 자원절약적 소비자태도와 행동간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민현선 등(1996), 서정희(1986)의 연구에서도 환경에 대한 태도는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큰 변수임이 밝혀졌다.

반면 일부연구에서는 환경태도와 행동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한다. 민현선 등(1999)의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에 비해 행동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행동의 결과가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과 금전적 이득과 직접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지향적 환경행동에 비해 사회나 환경보존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지향적 환경행동의 경우 태도와 불일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환경친화적 태도와 행동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연구(Ostman & Parker, 1987; Scott & Willits, 1994)에서는 환경태도와 행동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나, 태도적 반응이 반드시 행동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 만큼 강력한 인과적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소비자들의 환경태도와 환경행동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관심이 모아

지게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환경태도와 행동의 괴리에 대한 원인을 환경친화적 소비가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즉,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생활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하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개인의 편리함 및 복지와의 사회 전체의 이익 간에 생겨나는 '사회적 딜레마'의 문제로 인해 실제 행동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 행동은 타인과 사회의 복지를 고려하고 생태계의 보존을 지향하는 행동으로 시민의식과 윤리적 책임에서 출발하나, 이타심에 호소하고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실효성이 적다(박운아 등, 1997). 왜냐하면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과 같이 소비자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며, 환경친화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불편함과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 상황제약적 측면의 원인은 개인의 환경행동 의사결정상황에 반영되어(민현선·이기춘, 1999) 환경친화적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물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고 환경의 질을 보존,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원절약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원의 관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활의 질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자원절약행동이 사회적인 과제로 추상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으로 제시됨으로써 개인의 소비생활문제로 인지되거나 실생활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확산되지 못하였으며, 학문적으로도 주로 환경친화적 태도 및 행동의 하위영역으로 다루어져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행동 중에서 자원절약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절약태도와 행동을 수행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자원절약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자원절약태도와 행동의 관련

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급속하게 늘어나는 인구와 소비의 증가로 자원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자원의 부족은 다시 환경의 질적 가치를 저하시키며, 나아가 생활여건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가 사회의 모든 문제와 연관성을 갖고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문제 연구는 다학제적인 접근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심리학자 Rudolf Moos(1979)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인식이 행동의 선행요건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일한 견해로서 Kinner, Taylor, Ahmed(1974)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효율성 인식 정도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유도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소비자행동 모델에서도 소비자는 당면한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환경문제 인식이 환경보전적 행동의 일차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Engel & Blackwell, 1982; 이기춘, 1985).

경제학의 시각에서는 환경문제를 시장기구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며, 시장기구를 효과적으로 보완해준다면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환경에 대한 소비는 일반적인 재화 및 서비스와 달리 시장기구의 자율적인 조절능력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의 동기가 부여되지 못하므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정전, 2000).

환경경제학에서는 자연자원의 대량 이용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므로 경제로 투입되는 자연자원의 물량을 줄이는 것이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자원의 고갈을 완화시

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본다. 그러므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자원의 이용량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본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절약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환경경제학의 시각이다.

가정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자원의 사용과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할 때 가족원의 목표 달성과 환경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관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환경문제와 관련된 관리행동으로 보고(엄하정, 1993) 가정에서의 물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나아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수준이 낮았던 시대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원절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개인적으로도 절약과 내핍이 생활화되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자원은 질적, 양적으로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자원소비의 증가로 인해 점차 자원고갈, 에너지 부족,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고려한 자원절약 및 자원관리행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도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한 부분으로 자원절약행동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에너지 절약이 사회적, 국가적인 과제로 추상화되어 개별 소비자의 생활과는 괴리되었으며 소비자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의식으로 요구되어 그 효과가 생활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의 대부분이 개인 및 가정의 소비생활에서 비롯되므로 에너지 절약행동에 관한 연구를 소비자문제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 선행연구의 고찰

1970년대에 두 번의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선진

국에서는 '에너지 소비실태에 대한 연구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양식, 지식, 가치, 태도 등의 동기를 관련시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된 데에 비해 우리 나라는 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소비자학과 가정자원관리학 분야에서도 자원절약행동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적고, 대부분 환경의식적 태도 또는 행동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그 하위영역으로 자원의 구매와 사용 시의 절약행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백경미(1987)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에너지 절약행동의 주요요인은 에너지 절약태도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지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에너지 절약태도 및 지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에너지 절약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최남숙(1989)은 지역난방 실시지역에서 지역난방에 대한 태도, 난방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해 난방관리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난방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실천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기춘 등(1996)은 에너지 절약의식과 에너지 절약행동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에너지절약의식은 에너지 절약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전략을 강조하였다.

한편 자원절약행동을 다룬 이상협(2003)의 연구에서 자원사용행동에는 환경의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증됨으로써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해 물적 자원의 절약과 경제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 이무영 등(1995)의 연구에서 자원절약행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설명되었는데,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족 특성, 그리고 환경지식, 대중매체 접촉도 및 지역사회 활용도와 같은 주부의 환경문제 관심과 환경의식, 지역사회의 환경정책 수행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자원절약행동의 수준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박운아 등(1995)은 자원사용에 대한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이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자원변수 중 소

득·취업유무 및 직종·소비자교육 참여·소비자 지식수준, 심리적 변수 중 소비자 가치지향·환경위기 인지·소비자 효율성 인지·시간제약 정도, 그리고 환경영향변수 중 준거집단 영향과 환경기사 관심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개개인의 자원절약행동을 유인하는 동기요소, 그리고 지역사회환경에서 제공되는 자원절약을 위한 시설설비 및 제도 등의 환경적 자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가 또는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경과 주변 인적자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개인이 자원관리행동을 위해 배분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자원은 소유여부와 활용방식에 따라 개인적 자원, 가족자원, 환경적 자원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3. 관련변수의 고찰

1) 개인적 자원변수

주부의 연령은 자원절약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이무영 등, 1995), 이기춘 등(1996)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40대, 50대로 높은 소비자의 에너지절약행동 수준이 높은 반면 20대 소비자의 경우 낮았던 차이를 보여, 과거 빈곤한 시대에 성장했던 소비자들과 최근 풍요를 경험해 온 소비자들 간의 생활방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이상협(2003)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50대 이상인 집단과 가정축소에 해당되는 집단은 재활용행동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검소와 절약을 교육받았던 영향으로 자원절약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자원절약을 교육받고 실천했던 고연령층과 에너지와 자원을 풍요롭게 사용하면서 편의를 누리는 생활방식을 유지해 온 젊은 층은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수준은 자원절약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쳐 교

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원절약행동에 더 적극적이거나(이무영 등, 1995) 에너지절약행동 수준이 높았던 연구(이기춘 등, 1996)가 있다. 반면 교육수준이 환경친화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서정희, 1992; 엄하정, 1993; 최남숙, 1994)가 있어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교육수준의 부적 영향력에 대해 연구자들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지위 및 생활수준과 관련하여 고학력자들이 경제적으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편의주의적 가치성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부차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행동으로 적절한 시간자원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시간제약은 환경친화적 행동에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Vinning 과 Ebreo(1990)는 시간제약을 높게 인지하는 주부가 재활용에 보다 소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고, 박운아(1995)의 연구에서도 시간제약을 크게 인지하는 집단의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낮았다. 자원절약행동을 수행하는데도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배분해야 하므로, 시간제약을 받지 않는 집단이 더 자원절약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환경교육은 개개인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문제에 책임있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박운아(1995)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환경교육경험은 매우 큰 영향을 주었으며, 또 박운아 등(1997)의 연구에서 응답자간 환경교육경험 수준의 차이는 아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경험이 풍부할수록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두련 등(1998)은 환경교육경험이 자원절약적 소비자태도와 행동의 관계유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환경교육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환경교육 및 세미나 참여, 학교, 대중매체, 부모, 그리고 민간소비자단체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정도 또는 관심정도로 평가하고 있다.(박운아 등, 1995; 유두련 등, 1996; 박운아, 1997)

환경지식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원절약행동 또는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쳐 환경지식

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이나 (이승신 등, 1993; Oskamp 등, 1991), 자원절약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이무영 등, 1995; 백경미, 1987)

2) 가족자원 변수

남편의 직업과 자원절약행동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으나 서정희(1991), 홍기남(1992), 엄하정(1993)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관리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경우 환경의식적 행동 수행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직업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이 자원절약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Perman & Waren, 1977; Constantini & Hnaf, 1972)가 보고되고 있는데, 자원의 희소성이 큰 저소득층이 보다 자원절약의 필요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유형과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다. 즉, 공동주택 거주자가 단독주택 거주자보다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한다는 결과(이정우 등, 1989; 노남숙, 1993)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환경친화적 행동을 위한 관리와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본 연구가 있는 반면, 단독주택 거주자가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한다는 결과(Neuman, 1986; Oskamp, 1991)도 보인다. 주거유형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사용량과 자원절약을 위한 관리와 설비 등의 주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도 에너지자원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필요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원절약의식 및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환경적 자원변수

소비자는 환경친화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소비자 보증금제도, 각종 경연대회, 경품행사 등을 통하여 경제적 보상(유두련, 2002)을 얻거나 자원을 절약했을 때 금전적 이득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원절약행동을 수

행한다. De Young & Kaplan(1985-1986)의 연구에서도 금전적 보상은 재활용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박운아 등(1997)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 절감이 있다고 생각할 때 환경친화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동기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경제적 가치 또는 금전적 이득에 대한 인식은 자원절약행동의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남숙(1989)의 연구에서는 지역난방지역 주민은 지역난방방식이 난방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2003)의 연구에서 물 소비량에는 물 소비의 자가점검 용이성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물 절약행동의 실천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가정에서 사용되는 물과 전기의 자가점검설비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므로 에너지절약행동을 유인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준거집단의 행동은 자원절약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운아, 1995; 박운아 등, 1997; 이연호 등, 1997). 준거집단은 이웃 및 친지, 반사회,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개인 및 조직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통해 자원절약행동의 공동수칙과 실행에 대한 가시적 또는 묵시적 압력이 행사되기도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자원절약행동도 사회적 가치로 정착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개인이 자원을 사용할 때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아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자원절약행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원절약태도와 행동은 개인, 가족, 환경의 범위에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

는 자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자원 절약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 관련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탐색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도시주부의 자원절약태도 및 자원 절약행동은 개인적 자원, 가족자원, 환경적 자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도시주부의 환경지식, 자원절약태도 및 자원절약행동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 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은 업하정(1993), 이부영 등(1995), 이기춘 등(1996), 민현선 등(1999), 유두련(2002), 이상협(2003)의 연구를 참고로, 물·전기·가스 등의 에너지 절약, 냉난방 온도 조절, 가전제품의 관리, 일회용품 사용 자제, 교통수단 이용 자제 등에 대한 태도와 행동수행을 측정하는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부의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들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형성되어 작용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 영향요인들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으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관련변수는 그 특성에 따라 개인적 자원변수, 가족자원변수, 환경 자원변수로 구성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과 영향요인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5대 도시, 즉 서울, 경기지역, 대전, 대구,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부이다. 예비조사는 2002년 10월 1일에서 7일까지 각 10

명씩 총 5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를 위해 2002년 10월 10일에서 10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각 200부와 기타지역에 각 150부씩 총 1000부의 설문지를 조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포하였으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641부이다.

자료의 분석은 PC SAS Program(Ver 6.12)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경향은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통해 분석하고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들은 일원분산분석과 DMR 검증,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 중회귀분석과 경로 분석을 통해 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경로를 파악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시도하기 전에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으며 VIF 계수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세 미만이 26.5%, 41-49세가 52.1%, 50세 이상이 21.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가 약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58.3%, 전문대졸 이상이 41.7%로 고졸이하가 더 많았다. 주부들 중 비취업주부가 63.2%였으며, 남편의 직업으로는 전문·기술직/경영·관리직이 36.3%, 사무·판매·서비스직/자유·상공업이 54.4%로 나타나 전문·경영직보다 판매·상공업이 약간 많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329만 7천원이었으며, 주택유형으로는 공동주택이 65.1%로, 단독주택의 비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가 78.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의 평균 규모는 33.69평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부의 비율은 18.3%로 아주 낮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자원절약행동(17)	자원절약행동을 실행하는 정도 1=거의 하지 않는다 4=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자원절약태도(17)	자원절약행동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
환경지식(17)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정도 1=정답 0=오답
독립변수	
개인적 자원변인	
주부의 연령	만 연령(세)
주부의 교육수준	1=해당 0=비해당
고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이상	1=해당 0=비해당
학교환경교육 경험	1=있다, 0=없다
환경보호활동 참여	1=있다, 0=없다
환경관련 뉴스, 신문 관심	1=있다, 0=없다
시간계약지각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수행에 시간계약을 느끼는 정도 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가족자원변인	
남편의 직업	1=전문.기술직/경영.관리직 2=사무.판매.서비스직/자유.상공자영업 3=단순노무자. 농어업종사자. 무직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주택유형	1=단독주택 2=공동주택
주택소유형태	1=소유 0=비소유
주택규모	실제 평수(평)
환경적 자원변인	
수도사용량 점점 용이성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전기사용량 점점 용이성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경제적 보상 지각	자원절약으로 인한 개인적인 이득이나 금전적인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 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
지역주민 자원절약활동 활발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의 숫자는 문항수를 의미함

은 수준이었던 반면,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부는 65.2%, 환경문제와 관련된 뉴스와 신문 등을 관심있게 보는 주부는 76.3%로 매우 높게 나타나,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매스컴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주부들이 자원절약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적 자원 중 전기사용량 점점용이성은 2.08점으로 수도사용량의 점점 용이성보다 약간 낮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원절약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도는 3.44점이었다. 환경지식은 17점 중 평균

11.0점으로 상당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절약태도는 최고 85점 중 67.99점, 자원절약행동은 68점 중 47.52점으로 나타나, 주부들의 환경지식이나 자원절약태도의 수준은 높으나 일상생활에서 자원절약행동을 수행하는 정도는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자원변인에 따른 주부들의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의 차이

주부들의 자원절약태도와 행동이 개인적 자원변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 평균, 표준편차, N=641)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개인적 자원변인							
주부의 연령	40세 미만	170	26.5	교육수준	고졸 이하	374	58.3
	40-49세	334	52.1		전문대졸이상	267	41.7
	50세 이상	137	21.4	환경보호	있음	117	18.3
학교환경	있음	418	65.2	활동 참여	없음	524	81.7
교육경험	없음	223	34.8	환경관련뉴스	있음	489	76.3
				신문 관심	없음	152	23.7
가족자원변인							
남편의 직업	전문,기술직/경영,관리직	233	36.3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이하	197	30.7
	사무,판매,서비스직/자유,상공자영업	349	54.4		210-300만원	213	33.2
	단순노무자,농어업종사자,무직	59	9.2		310-400만원	104	16.2
주택규모	30평 미만	224	33.7	주택유형	400만원 이상	127	19.8
	30-40평	201	31.4		단독주택	201	31.4
	41평 이상	141	22.0		공동주택	141	22.0
주택소유 형태	소유	505	78.8				
	비소유	136	21.2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자원변인							
주부의 연령(세)	43.61	8.31	환경지식(1-17점)	11.0	2.24		
시간제약지각	3.78	1.14					
가족자원변인							
월평균 가계소득(단위 : 만원)	329.7	254.32	주택규모(단위 : 평)	33.69	17.78		
환경적 자원변인							
수도사용량 점점 용이(1-5점)	2.54	1.38	경제적 보상 지각(1-5점)	3.38	0.99		
전기사용량 점점 용이(1-5점)	2.08	1.21	지역주민 자원절약활동 활발(1-5점)	3.44	1.13		
자원절약태도	67.99	10.14	자원절약행동	47.52	8.84		

인과 가족자원변인, 환경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자원절약태도는 가계소득과 주택규모, 환경관련 뉴스 및 신문에 대한 관심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원절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절약의식 수준이 높았던 선행연구(Hogan, 1979; 백경미, 1987; 최남숙, 199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가장 규모가 큰 집단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원절약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주택규모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에 차이가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는 가시적인 사용금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원절약에 적극

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뉴스나 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부가 그렇지 않은 주부에 비해 자원절약에 대해 현저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대중매체가 바람직한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반영해준다고 하겠다.

자원절약행동은 주부의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춘 등(1996)의 연구에서도 연령은 에너지절약행동에 정적인 인과적 효과를 보여 젊은 소비자들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남편의 직업별로는 전문, 기술직/사무, 판매, 서비스직인 집단보다는 단순노무자·농어업종사자·무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주부의 자원절약태도와 자원절약행동의 차이

(N=641)

독립변수	종속변수	N	자원절약태도	자원절약행동
			평균(DMR)	평균(DMR)
주부의 연령	40세 미만	170	67.83	46.29(B)
	41-49세	334	67.86	47.44(B)
	50세 이상	137	68.51	49.26(A)
	F값		N.S.	4.35**
주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374	68.22	48.02
	전문대졸이상	267	67.67	46.82
	T값		N.S.	N.S.
남편의 직업	전문, 기술/경영, 관리직	233	67.46	46.52(B)
	사무, 판매, 서비스/자유, 상공자영	349	68.17	47.55(B)
	단순노무자, 농어업종사자, 무직	59	69.03	51.34(A)
	F값		N.S.	7.15****
가계 소득	200만원이하	197	69.58(A)	48.78(A)
	210-300만원	213	67.47(AB)	47.53(AB)
	310-400만원	104	66.88(AB)	46.41(B)
	400만원이상	127	67.32(B)	46.47(B)
	F값		2.97*	3.21*
주택유형	단독주택	224	68.29	47.79
	공동주택	417	67.83	47.38
T값		N.S.	N.S.	
주택규모	30평 미만	299	68.50(AB)	48.09
	30-40평	201	66.52(B)	46.95
	41평 이상	141	69.00(A)	47.13
	F값		3.21*	N.S.
학교환경교육 경험	있다	418	67.97	47.41
	없다	223	68.04	47.74
	T값		N.S.	N.S.
환경보호활동 참여경험	있다	117	69.37	50.35
	없다	524	67.68	46.89
T값		N.S.	-3.87***	
환경관련 뉴스, 신문관심	있다	489	69.32	48.62
	없다	152	63.72	44.00
	T값		-5.84***	-5.76***

*p<.05 **p<.01 ***p<.001

적인 집단의 자원절약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자원절약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의 자원절약행동수준이 가장 높았다. Pelman 등(1977), Constantini 등(1972)의 연구에서 저소득층이 자원절약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서는 소득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필요성에서 자원절약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직업과 가계소득에 따른 주부의 자원절약행동수준의 차이는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자원절약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주부의 환경교육 중 학교환경교육경험은 자원절약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환경보

호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부는 그렇지 않은 주부보다 자원절약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와 관련된 뉴스나 신문보도에 관심을 보이는 주부가 그렇지 않은 주부보다 높은 자원절약행동수준을 보였다. 이는 환경교육 참여경험이 있고 환경기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의 수행수준이 높았던 박운아 등(1995)의 연구나 환경오염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를 자주 관심있게 접한 주부의 환경관리행동 수준이 높았던 엄하정(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3. 주부의 환경지식, 자원절약태도, 자원절약행동의 관련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

개인적 자원변인, 가족자원변인, 환경적 자원변인이 환경지식, 자원절약태도 및 자원절약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주부의 환경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환

경보호활동 참여경험과 지역주민의 자원절약행동수준으로, 주부자신이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자원절약행동이 활발할수록 환경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족자원변인은 환경지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주부의 자원절약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적 자원변수 중 환경관련 기사 관심유무와 시간제약지각, 가족자원변수 중 주택소유형태이며, 환경적 자원변수로는 경제적 보상 지각, 전기사용량 점검용이성, 환경지식이었다. 즉 주부가 환경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시간제약을 덜 느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전기사용량 점검이 용이할수록,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할수록, 환경지식이 많을수록 자원절약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간제약 지각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원

<표 4> 주부들의 환경관련지식, 자원절약태도, 자원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환경지식		자원절약태도		자원절약행동	
		b	β	b	β	b	β		
개인적 자원변인	주부 연령	-.014	-.055	.066	.054	.084	.079*		
	주부 교육수준	.228	.050	-.167	-.008	.213	.012		
	학교 환경교육 경험	.179	.038	.015	.001	-.054	.003		
	환경보호활동 참여	.533	.092*	.539	.021	1.755	.077**		
	환경관련 뉴스, 신문 관심 시간제약지각	.399 .092	.074 .047	4.560 1.415	.191*** .159***	1.551 .582	.075* .075*		
가족자원 변인	남편 직업	.114	.031	.924	.056	1.536	.107***		
	가계소득	-.0001	-.007	.0001	.002	-.00001	-.0003		
	주택유형	.042	.009	-.772	-.036	-.293	-.016		
	주택소유형태	.401	.073	-2.237	-.090*	-1.247	-.058		
	주택규모	-.002	-.015	.016	.028	-.014	-.028		
환경적 자원변인	경제적 보상 지각	-.093	-.042	1.381	.136***	.840	.095**		
	수도사용량 점검용이성	-.067	-.042	.403	.055	.342	.053		
	전기사용량 점검용이성	.109	.059	.884	.105**	.207	.028		
	지역주민 자원절약활동 활발	.248	.125**	-.219	-.024	.046	.006		
	환경지식 자원절약태도	- -	- -	0.343 -	.076* -	-.150 .452	-.038 .519***		
상수		9.91***		50.83***		8.92***			
R ²		0.046		0.164		0.429			
F값 및 유의도		2.012**		7.660***		27.477***			

*p<.05 **p<.01 ***p<.001

절약을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고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자원절약태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기사의 관심은 자원절약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대중매체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부들이 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대중매체의 환경정보에 의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기사용량 검침 용이성과 경제적 보상 지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원절약형 설비와 보상적 정책이 효과적으로 자원절약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부의 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과 환경보호활동 참여경험, 환경관련 기사 관심유무, 시간제약 지각과 남편의 직업, 경제적 보상 지각, 전기사용량 점검 용이성, 그리고 자원절약태도였다. 연령이 많은 주부일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더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정적 영향력은 많은 선행연구(이승신 등, 1993; 안향아, 1994; 이기춘 등, 1996; Vining & Ebreo, 1990)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자원절약행동 및 환경친화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환경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환경기사에 관심을 가질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더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마스크림 접촉도가 환경관리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엄하정(1993)의 연구나 다양한 환경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환경의식적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 박운아 등(1995)의 연구와 일치하며, 환경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제약을 적게 지각할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원절약행동을 수행하는데 시간자원이 요구되므로 시간부족에 대한 인지는 자원절약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이 농어업이거나 노무자인 집단이 전문관리직 집단에 비해 자원절약행동을 더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자원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집단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에서 자원절약을 실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지각이 클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개개인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주어지는 경우 자원절약행동이 더 가시적으로 실행된다고 하겠다. 특히 경제적 보상지각의 영향력은 경제적 동기가 환경친화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던 Oskamp 등(1991), 박운아 등(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경제적 동기가 자원절약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주는 것이다. 한편 자원절약태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으로써 자원절약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절약태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자원절약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환경지식은 자원절약행동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환경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자원절약행동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4.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경로분석

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들을 제외시키고 모형을 재구성하여 최종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경로모형(그림 1)과 환경지식과 자원절약태도를 매개로 한 자원절약행동의 총인과효과(표 6)를 살펴보면 주부의 연령과 환경보호활동 참여경험, 환경기사 관심유무, 시간제약지각, 남편의 직업, 경제적 보상 지각, 자원절약태도가 정적 직접 효과를, 환경기사 관심유무, 시간제약지각, 경제적 보상 지각, 환경지식이 정적 간접 효과를, 전기사용량 점검용이성, 주택소유형태가 부적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주부의 연령과 환경보호활동 참여경험은 직접 효과만을 미치며, 연령이 많을수록,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때 자원절약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였다. 환경관련 기사 관심유무는 직접 효과와 환경지식 및 자원절약태도를 통한 간접 효과를 갖는다. 즉, 환경기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 높은 수준의 환경지식과 긍정적인 자원절약태도를

<표 5> 경로분석을 위한 회귀분석표

(N=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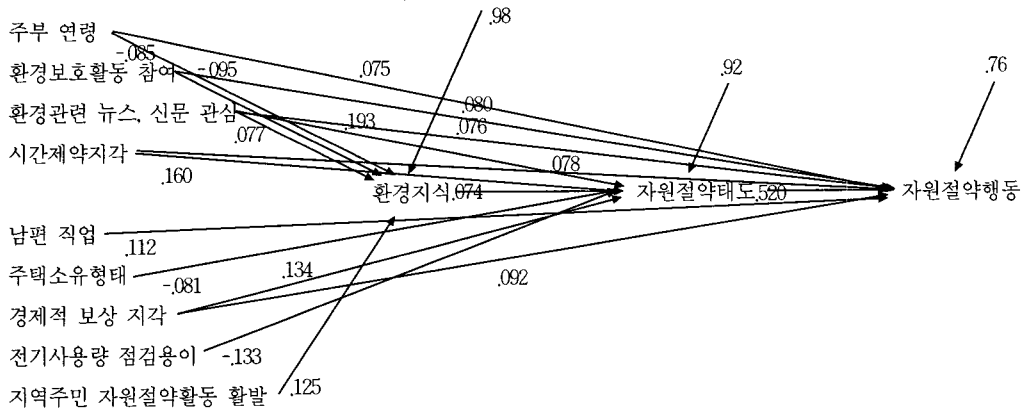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원절약태도		자원절약행동	
	b	β	b	β	b	β
주부 연령	-.023	-.085*	.088	.072	.079	.075*
환경보호활동 참여	-.550	-.095**	.509	.019	1.826	.080**
환경관련 뉴스, 신문 관심	.403	.077*	4.604	.193***	1.572	.076*
시간제약지각	.079	.041	1.427	.160***	.605	.078*
남편 직업	.068	.019	.969	.059	1.608	.112***
주택소유형태	.0363	.067	-2.006	-.081*	-1.272	-.059
경제적 보상 지각	-.043	-.038	.682	.134***	.408	.092**
전기사용량 점검용이성	-.070	-.038	-1.111	-.133***	-.379	-.052
지역주민 자원절약활동 활발	.248	.125**	.203	.023	-.116	-.015
환경지식	-	-	.334	.074*	-.154	-.039
자원절약태도	-	-	-	-	.453	.520***
상수	10.66***		48.42***		7.76***	
R ²	0.042		0.161		0.426	
F값 및 유의도	3.050***		12.05***		42.47***	

*p<.05 **p<.01 ***p<.001

<표 6> 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인과효과

(N=641)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자원절약행동	주부 연령	.075	-	.075
	환경보호활동 참여	.080	-	.080
	환경관련 뉴스, 신문 관심	.076	.100	.176
	시간제약지각	.078	.083	.161
	남편 직업	.112	-	.112
	주택소유형태	-	-.042	-.042
	경제적 보상 지각	.092	.070	.162
	전기사용량 점검용이성	-	-.069	-.069
	환경지식	-	.038	.038
	자원절약태도	520	-	520
자원절약태도	주부 연령	-	-.006	-.006
	환경보호활동 참여	-	-.007	-.007
	환경관련 뉴스, 신문 관심	.193	.006	.199
	시간제약지각	.160	-	.160
	주택소유형태	-.081	-	-.081
	경제적 보상 지각	.134	-	.134
	전기사용량 점검용이성	-.133	-	-.133
	지역주민 자원절약활동 활발	-	.009	.009
	환경지식	.074	-	.074
환경지식	주부 연령	-.085	-	-.085
	환경보호활동 참여	-.095	-	-.095
	환경관련 뉴스, 신문 관심	.077	-	.077
	지역주민 자원절약활동 활발	.125	-	.125



〈그림 1〉 자원절약행동의 인과적 모형

가지고 있으며, 환경지식수준이 높고 자원절약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원을 절약하는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제약지각은 직접 효과와 함께 자원절약태도를 통한 간접 효과를 보여 시간제약을 지각할수록 자원절약행동의 수준이 낮고, 시간제약지각이 소극적인 자원절약태도를 형성시켜 자원절약행동에 더 소극적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직접 효과만을 보이는데, 단순노무자 및 농어업인 집단이 전문관리직 집단에 비해 자원절약행동을 더 수행하였다. 한편 주택소유형태는 자원절약행동에 부적 간접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서 자원절약행동을 더 잘 수행하였다. 경제적 보상 지각은 직접 효과와 자원절약태도를 경유한 간접 효과를 보였는데, 자신의 자원절약으로 인해 경제적 보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뿐 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원절약태도를 유도함으로써 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지식은 간접 효과만을 보여, 환경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절약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됨으로써 자원절약행동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자원절약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자원절약태도로 나타남으로써 자원절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발적

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것이 자원절약행동에 가장 효과적인데, 이러한 적극적인 자원절약태도는 뉴스나 신문의 보도 또는 학교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시키고 자원절약방법을 가르치는 환경지식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자원절약을 실행할 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정책적으로 강화하여 자원절약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원절약행동을 수행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자원절약태도와 행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자원절약태도는 가계소득과 주택규모, 환경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유무를 제외한 주부의 개인적 자원이거나 가족자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자원절약행동은 주부의 연령과 남편의 직업, 가계소득,

환경활동 참여경험과 환경기사 관심유무 등 보다 다양한 자원변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공통적인 것은 환경관련 기사 관심유무, 시간제약지각, 경제적 보상지각이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원절약태도를 가지고 자원절약행동을 수행하는 주부의 특성은 대중매체의 환경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제약을 적게 지각하며, 자원절약으로 인한 경제적 보상을 지각하는 소비자라고 볼 수 있다. 시간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제약지각이 자원절약행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타당한 반면, 자원절약적 태도를 갖는 데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취업주부와 같이 절대적으로 시간부족을 경험하며 시간제약을 많이 지각할 수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자원절약방법을 소개하거나 자원절약태도를 긍정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직장단위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적 보상 지각이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개개인에게 사회와 환경에 대한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으로 자원절약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적으며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와 정책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환경기사에 대한 관심은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대중매체의 환경기사 보도와 프로그램 기획이 일반인들의 자원절약행동에 빠른 속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도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한편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비교해보면, 우선 자원절약태도에 영향을 미쳤던 환경지식이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환경지식은 적극적인 자원절약태도를 형성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환경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원절약행동의 실천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및 다양한 단체의 환경교육 및 홍보가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행가능한 실천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자원절약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주부연령과 환경보호활동 참여경험,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자원절약행동의 영향변수로 나타난 것은 자원절약행동이 다양한 자원에 의해 제약을 받거나 유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자원절약행동에 소극적인 결과는 젊은 연령층이 풍요한 시대에 자원절약교육을 받지 않았던 점에 원인이 있을 것이나, 앞으로 자원이 고갈은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젊은 세대에게 자원절약교육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절약행동수준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보호활동 참여경험의 정적 영향력을 볼 때 시민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보호활동을 활성화시켜 개인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로 제공하거나 특히 젊은 세대의 소극적인 자원절약행동과 관련하여 중고등학생의 현장견학 및 봉사활동의 기회로 제공한다면 자원절약행동을 체험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간제약지각과 환경기사 관심유무, 경제적 보상지각은 자원절약행동에 직접적인 인과적 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환경지식이나 자원절약태도를 경유한 간접 효과를 미쳤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이 자원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원절약태도는 자원절약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절약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원절약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절약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자원절약태도와 행동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므로 태도와 행동 간의 격차를 세분화하여 측정하거나 격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광범위하게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개개인의 자원절약태도와 행동의 격차의 정도를 측정하는 시도나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문화적 배경요인이나 환경정책과 같은 광역환경의 자원을 포함시켜 자원절약행동이 유도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희선(1993). 청소년 소비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노남숙(1994). 주부의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 의, 식, 주, 경영, 구매, 가족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민현선, 이기춘(199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 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 29-44.
- 박운아, 이기춘(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212.
- 박운아, 이기춘(1997).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행동과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221-236.
- 백경미(1987).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서정희(1986).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서정희(1997).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 행동 및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27-40.
- 안향아(1994). 주부의 환경문제 인식 정도가 환경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엄하정(1993).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주부의 관리 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69-181.
- 유두련, 심미영, 정경옥(1996). 환경교육이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97-210.
- 유두련, 심미영(1998).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책임적 소비자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23-140.
- 유두련(2002). 재활용행동 집단별 소비자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53-67.
- 이기춘, 여정성, 민현선(1996).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행동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호응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27-239.
- 이경희(2003). 도시기구의 환경친화적인 태도와 물 소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93-111.
- 이무영, 이정우(1995).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4), 11-23.
- 이상협(2003). 환경친화적 가정자원관리행동과 환경의식, 환경지식, 환경교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91-102.
- 이승신, 이혜임, 류미현(1993).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 능력. *소비자학 연구*, 4(2), 73-96.
- 이연호, 박미석(1997).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주부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행동에 관한 인과적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1), 443-459.
- 이정우, 이명숙(1989). 도시주부의 생활환경 오염 인지와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 이정전(2000). *환경경제학*. 박영사.
- 최남숙(1989). 지역난방 아파트의 난방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79-95.
- 최남숙(1990). 에너지 절약 광고가 에너지절약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최남숙(1994).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홍기남(1992).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주부의 소비자 의식과 환경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Constantini, E. & K. Hanf (1972). Environmental Concern at Lake Tahoe: Study of Elite Perceptions, Backgrounds and Attitudes, *Environment and Behavior*, 4, 209-242.
- De Young, R. & Kaplan, S (1985-1986). Conservation behavior and the structure of satisfac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Systems*, 15(3), 233-242.
- DeYoung, R (1989). Exploring the Difference between Recyclers and Non-Recyclers; The Role of Inform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Systems*

- 18(4).
- Hogan, M. J. and B. Paolucci (1979). Energy conservation; family values, household practices and contextual variab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4), 210-218.
- Kinner, T. C, J. R Taylor and S. A. Ahmed (1974). Ecologically concern consumers; Who are they?, *Journal of Marketing*, 38.
- Neuman, K (1986). Personal Values and Commitment to Energy Conserva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18(1), 53-74.
- Oskamp, S. et al. (1991).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recycling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23(4).
- Ostman, R. E. & Parker, J. L. (1987). Impact of education, age, newspapers and TV on environmental Knowledge, concerns, and behaviors,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9, 3-9.
- Perlman, R. and R. Warren (1997). *Families in the Energy Crisis: Impacts and Implication for Theory and Policy*,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ing Co.
- Scott, D & Willits, F. K. (1994)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 A Pennsylvania survey, *Environment and Behavior*, 10, 77-101.
- Vicker, A. (2001). *Handbook of Water Use and Conservation*, Water Plow Press, Amherst, MA.
- Vining, J. & Ebreo, A. (1999). What make a recycle? : a comparison of recycler and non-recycler, *Environment and Behavior*, 22(1), 55-73.

(2003년 12월 30일 접수, 2004년 6월 18일 채택)